

11. 영국에 부는 거센 유기농 열풍

파리지사

주요내용

▶ 영국 유기농식품

- 영국 식료품 전문 매거진 「The Grocer」는 지난 2월 7일 작년 한 해 영국의 유기농식품 매출액이 22억 파운드(한화 약 3조 2천억원)를 달성했다고 밝혔다.
- 2017년 한 해 유기농식품의 성장세는 6%로 나타났으며, 비유기농 식품이 2%의 성장세에 머문 것과 비교하여 우세한 성장세를 보였다. 유기농 신선식품의 매출이 29%, 축산가공품(치즈 햄) 식품의 매출이 21.3%로 유기농식품의 성장세를 견인하였으며, 유기농 와인의 매출도 8% 상승하여 음료 업계에 새로운 반향을 일으켰다.
- Soil Association과 Nielson의 공동 연구에 따르면, 작년 한해 적어도 100여 가지가 넘는 유기농식품이 출시되었으며, 스낵, 축산가공품, 면, 레디밀(Ready Meal), 주류 등 광범위한 식료품 업계에서 유기농 저염, 저당, 글루텐프리 등이 공통적인 주요 콘셉트로 출시되었다.

▶ 이제는 다양한 유통채널에서 유기농식품 구입

- 2016년 유기농식품의 판매의 80%가 대형마트에서 이루어졌던 것에 비해 2017에는 70%로 감소하였으며, 유기농식품 구매자의 1/7은 규모가 작은 소매업체에서 구매하는 양상을 보였다. 유기농식품 배달업체도 눈에 띄게 증가하였으며, 개인이 운영하는 소규모 유통업체 푸드 서비스가 차지하는 비중도 10.2%로 크게 상승하였다.

▶ 국민의 건강한 식습관을 위한 영국 정부의 노력

- 설탕섭취 제한 가이드라인 발표, “2020년까지 설탕 섭취 20% 감소”

- 영국보건부 산하 공중보건기구는(PHE: Public Health England) 작년 3월, 국민의 건강과 소아비만 감소를 위해 2020년까지 9개의 영역에서 설탕 함유량을 첫 해 5%, 2020년까지 20%, 20만 톤의 설탕을 차례 감소를 목표로 설탕섭취 제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국민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했다.
- 주요 대상 9개 부문은 1) 시리얼류, 2) 요거트 등 유제품, 3) 비스킷 등 스낵류, 4) 케이크류, 5) 아침대용 제빵류(마들렌, 크로와상 등), 6) 푸딩류, 7) 셔벗 및 아이스크림류, 8) 고당도 과자류(초콜릿, 캐러멜 등), 9) 기타 당과류(땅콩버터, 디저트 토핑 등)과 같으며, 웰빙식품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고조됨에 따라 켈로그, 네슬레 등의 생산라인에도 변동이 생겨 기존의 고당도 시리얼 제품의 생산이 일부 중지되거나 저당도 제품으로 개선하는 등 건강한 식품 생산을 목표로 하는 새로운 업계의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

- 2018년 3월부터 음료업계 대상 설탕세 실행

- 영국 보건부는 연구결과 ‘설탕에 부가되는 세금이 더 많을수록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결론지었으며, 음료업체의 설탕 사용량을 감소 및 소비자의 건강한 식품 소비를 목적으로 3월부터 음료류에 설탕세를 적용한다’고 발표했다.

- 정부는 어린이 비만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요소 중 하나가 탄산음료라고 지적하였으며, 일반적으로 콜라 한 캔에 들어있는 9~13 티스푼의 설탕함유량은 어린이 설탕 권장량의 2배가 훨씬 넘는 양이라고 밝혔다. 설탕세가 부과되는 주요대상 음료로는 콜라, 사이다와 같은 탄산음료로 설탕을 넣지 않은 과일주스나 음료가 들어간 음료는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

▶ **생수 판매량이 탄산음료 판매량을 넘어서다**

- 식품전문지 Food Navigator는 웰빙에 대한 사회적 관심 증가가 유기농 시장 성장의 가장 큰 동력이며, 미디어를 통해 식품안전의 중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원산지와 유통과정의 투명성에 대한 대중의 관심 역시 증가하였다고 분석하였다.
- 작년 한 해 설탕 섭취량은 2013년 동기 대비 3.4%, 1인당 1/4kg로 감소하였으며, 탄산음료에 대한 경각심이 상승했다. 이에 따라 생수 판매량이 대폭으로 상승하였고, 2017년 8월에는 생수판매량이 처음으로 탄산음료의 판매량을 초월하였다. 영국의 대표 생수업체인 Highland Spring Group는 현재 이러한 트렌드가 지속된다면 2021년에는 생수시장의 매출이 4.7백만 파운드에 이를 것이라고 예측하였다.

* 참고자료

- The Grocer. Sales of organic food and drink hit record-highs 2017.2월
- Food Navigator. UK Food and drink companies keeping up with consumer trend towards healthier choices.
- Public Health England. Sugar Reduction: Achieving the 20%
- The Grocer. UK winning war on sugar as industry responds on health

시사점

- 웰빙 식품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전반적 분위기가 국내 수출업체의 수출품목 우선순위 결정에 참고가 될 것이다. 유기농 식품 중 큰 비중을 차지하는 신선식품의 매출이 주로 소매상에서 이루어짐에 따라 신선식품 보다는 장기간 보존 가능 가공식품을 수출하는 것이 유리할 것으로 판단된다.
- 탄산음료의 매출 감소와 생수의 매출 상승은 한국의 다양한 차와 복분자등 건강음료 진출의 계기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